

6. 감정이입

: 화자의 정서(감정)를 외적 대상물에 이입해 표현하는 기법

1) 감정이입의 성립 조건

외적 대상물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 + 화자의 정서와 외적 대상물의 정서가 일치

2) 감정이입물과 객관적 상관물의 관계

객관적 상관물 :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이용된 외적 대상물

감정이입물 : 화자의 정서를 대신하는 외적 대상물

7. 활유법, 의인법(인격 부여)

1)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

인간이 아닌 것을 인칭 대명사로 호칭 ex) '백구야', '꽃아', '너'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처럼 사고, 행위 ex) '나무가 춤을 춘다'

2) 의인법과 활유법의 관계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활유법도 성립

활유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존재

ex)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 의인법(O), 활유법(O)

ex) 노을은 나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피고 있었다. → 의인법(X), 활유법(O)

8. 설의법

: 화자가 궁금하지 않은데 의문문을 사용하는 기법 (질문 목적이 아닌 강조 목적)

물음의 방식 활용 (O), 의문문 활용 (O), 의문형 종결 어미 활용 (O), 화자의 의문 표현 (X)

9. 대구법

: 유사한 통사 구조(문장 구조)의 어구를 짹 지어 표현하는 기법 → 리듬감을 주는 효과

해석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존재 (두 문장 간의 의미는 유사하거나 반대일 것)

ex) 돌담에 속삭이는 햅발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주의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단순 반복과 구분!

(대구법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어구를 '쫙 지어' 표현해야 함 →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구법 X)

10. 연쇄법

: 앞 문장의 마지막 시어나 시구로 다음 문장이 시작하는 기법

ex)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